

경제교육의 비전과 전략

김진영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왜 경제교육인가	2
제 3 장 경제교육의 전달과정은?	4
1. 경제교육의 내용과 전달과정	4
2. 교육과정 개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5
3.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8
제 4 장 어떤 경제교과서가 필요한가?	12
1. 교과서의 기술이 적합한가?	12
제 5 장 실증연구를 하자	15
제 6 장 학습자와 교수자는 어떻게?	17
1. 경제교육과 학습자의 학습동기	17
2. 교사양성과 연수	17
제 7 장 맺음말	18
참고 문헌	20

제1장 서론

교육은 그 사회의 문화적 전통의 유지와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들 개개인이 내리는 의사결정이나 선택이 개인의 행복은 물론 사회의 유지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는 민주시민 혹은 계몽된 시민을 전제로 사회가 유지 운영되도록 만들어져 있다.

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의 유지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민주시민(democratic citizen) 혹은 계몽된 시민(enlightened citizen)을 양성할 의무를 지고 있다. 매우 축약한 느낌이 있지만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민주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민주주의 자체가 정의되기 어려운 만큼이나 민주시민도 정의되기 어렵다.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나 태도는 여러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학과 관련된 자질들은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태도, 사회현상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을 꼽을 수 있다.

개인의 의사결정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후생수준을 결정한다. 직업선택, 노동시간, 소비, 저축과 투자, 은퇴 등 경제와 관련된 개인들의 의사결정은 자신의 경제적 복지나 후생수준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개인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현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다. 이런 사회에서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든 사람들의 선택이나 의사결정이 국가경제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따라서 현명한 선택은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현명한 의사결정은 사람들이 가능한 대안이 무엇이고 그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이 무엇인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경제학적 고려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모든 시민들이 다 전문적인 경제학적 식견을 갖춘 경제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국민(시민)들의 경제 이해도가 높을수록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빨라질 것은 분명하다.

오늘 우리의 관심사는 수많은 경제문제와 당면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국민(시민)의 경제학소양 혹은 경제지식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경제학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에서 학교 특히 초중고의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은 내면화가 잘되기 때문에 효과가 오래가고 또 쓰임새가 많다.

이 글은 그동안의 각종 연구문헌들이 지적한 경제교육의 문제점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보려는 시도이다. 다르게 말하면 미래의 경제교육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 그런 전망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논의 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글의 성질상 데이터를 가지고 주장을 검증하는 형식이 아니고 상당부분 선험적인 예언과 주관적인 주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교육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할지에 대한 검토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름대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왜 경제교육인가

서양에서 학교 교육이 출발할 때 교육의 기본적인 목표는 읽기(read), 쓰기(write), 그리고 셈하기(calculate)의 세 가지 뿐이었다. 이 세 가지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다기해 지면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자질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는데 경제학 소양(economic literacy)도 포함되고 있다.

경제학소양을 기르기 위한 경제학이 현대 사회의 시민을 위한 필수 과목으로 강조되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경제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 되었다는 점과 더불어 경제학이 이론적 분석, 인간의 복지에 필수적인 사항 그리고 과학의 엄밀성을 결합한 유일한 학문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학은 변화하는 현실 생활을 대상으로 하고 동시에 학습자가 변화하는 동적인 세계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학 학습의 이익을 노벨상 수상자인 토빈(J. Tobi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평생동안 밥벌이를 하는 사람, 소비자, 그리고 시민과 유권자로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올바른 정보뿐만 아니라 그릇된 정보를 수도 없이 마주치게 된다. 그러므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들의 유용성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 학습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슈(M. Shug)은 '효과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사고력과 경제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한편 바나스잭(R. Banaszak)은 경제학개념이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의 경제생활을 좀 더 확실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의 삶을 충실히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근거라면 경제교육은 항상 강조되어야 하는데 그 열기나 강도는 주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느낌이다. 왜 최근에 경제교육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가? 개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회가 점점 더 상호의존적이 되어갈수록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상호의존성은 국내의 경제주체들 사이의 의존성과 한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의존성 모두를 포함하는데 이런 의존성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급속히 증가해 왔다.

이런 전 지구적 의존성의 증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기여하기도 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인하기도 한다. 1997년 여름에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리라는 것을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의 정부 관리나 경제 연구소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건실한 경제기반(fundamentals)을 근거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외환위기는 우리 경제가 도약을 시작한 이후에 사상 두 번째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하고 한국 사회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큰 계기가 되었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어느 한 곳의 사건이나 사고가 다른 곳의 경제상황에 바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중동에서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간의 전쟁은 석유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한국의 석유 가격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짐작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남부에 허리케인이 발생하면 이것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2005년 미국의 뉴올리언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는 곧바로 미국의 석유생산에 영향을 주고 국제 석유시장에서 석유가격을 상승시켰다. 미국 허리케인이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20년 전에는 환율이 대부분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고 국제수지를 관리하는 관리나 소수의 수출입 기업 그리고 극소수의 외국여행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은 물론 개인들의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환율변동은 국내의 물가 변동만큼이나 사람들의 직접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경제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인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두고도 쉽게 알 수 있다. 자유로운 교역의 이익은 당사자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에게는 너무도 당연하여 별도의 설명여지가 없다. 그러나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교역은 제로섬게임(zero-sum game)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교역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은 다른 쪽의 손실로 간

주된다. 이와 같이 교환에서 ‘당신의 이익은 곧 나의 손실’이라는 인식만큼이나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경제학 주제도 많지 않을 것이다. 경제학은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한다.

세계화의 진전과 상호의존성의 증대에 따라 경제적 의사결정의 결과는 점점 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후생에도 큰 영향을 주지만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며 미래의 발전을 거듭할 수 있게 하는 의사결정 능력을 제공해 준다.

앞으로의 경제교육은 민주시민의 양성이 아니라 글로벌스탠더드를 갖춘 세계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제3장 경제교육의 전달과정은?

1. 경제교육의 내용과 전달과정

학교 교육은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그리고 평가를 규정하는 교육과정을 결정하여 고시하면 이 교육과정에 기초해서 교과서의 제작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교의 경제교육 내용도 1차적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결정되고, 이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지는 교과서의 내용을 통해서 2차적으로 교육내용이 정해진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최종적인 해설자로서 경제교육 내용을 형성하는데 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경제교육이 의도하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세 단계의 과정이 적절하게 작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첫 번째 단계인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서 경제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 경제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교과서 개발이나 교사의 수업은 모두 교육과정을 근거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경제교과서들이 경제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경제교과서에 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것은 경제교과서의 집필 기준이 된 7차 교육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검정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지만 이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재량이 교과서의 집필자에게 주어져 있다. 따라서 교과서를 만드는 집필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경제교육의 내용이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식적인 교육과정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교사는 교육내용을 실제로 교실상황에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내용, 계열성, 학생들의 학습경험을 결정하는 교수학습 전략과 같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교사가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이 사용하는 교과서나 참고도서 수업전략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교육내용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사용하더라도 교사가 사용하는 참고자료나 교사의 교육내용 해석에 따라 전혀 다른 경제교육 내용이 전달될 수도 있다.¹⁾ 교사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해석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수문장(gatekeeper)라고 부른다.

2. 교육과정 개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제교육의 전달과정을 생각한다면 경제교육의 첫 출발은 교육과정의 개발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 개발은 이 지침에 근거해서 교과서의 내용이나 수준이 정해지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경제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야 한다.

경제교육에서 교육과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학의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이 어떤 경제문제에 의견 일치에 도달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²⁾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경제학 개념들은 경제학의 핵심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회비용, 탄력성, 잉여를 비롯하여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의 중요한 개념들은 경제학계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개념과 원리를 담아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경제학 교육과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잘 개선되지 않는 것은 핵심적인 개념을 그냥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지적 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재구성하여 전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1) Thornton, Stephen J. (1989), Aspiration and Practice: Teacher as Curricular-Instructional Gatekeeper in Social Stud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70th, San Francisco, CA, March 27-31, 1989).

2) 경제학 관련한 조크(joke) 중에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서도 같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학문은?'이라는 물음이 있다. 답은 물론 경제학이다.

브루너(J. Bruner)에 의하면 '지식을 어떻게 올바른 형태로 구성하고 정립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인가'가 교육의 핵심문제이다. 브루너는 각 학문영역의 전문가들이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개발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동시대의 지식이 잘못 전달되거나 심지어 정반대의 내용들이 담겨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개발에는 그 학문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을 올바르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브루너의 자신의 저서인 교육의 과정(process of education)에서 강조한 교육과정 관련 네 가지 핵심³⁾ 주장들은 경제교육에 모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첫 번째 주장은 어떤 주제의 구조(structure)를 교수-학습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어떤 주제나 학문의 구조를 알아야 의미 없어 보이는 다른 일들과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구조는 어떤 학문이든지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되는 아이디어나 개념이 근본적이면 근본적일수록 더 넓은 범위에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브루너의 주장이다.

기회비용과 같은 근본적인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모든 교환, 모든 선택뿐만 아니라 기업이론과 국제무역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관찰되는 현상을 분석하거나 설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브루너의 제안은 지식을 알만한 가치가 있고 학습상황 외의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구조와 연결시키는 것이 교육과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경제학의 개념과 원리는 단편적으로 독립되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가지고 전달되어야 학생들에게 가치가 있고 적용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의 주장은 적절한 방법이나 전달할 언어만 찾으면 세상에 본질적인 내용이 어려워 가르치지 못할 것은 없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학습할 준비(readiness for learning)가 된 상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주장에 따르면 단순히 '너무 어렵다'(too difficult)는 잘못된 가정 속에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을 뒤로 미룸으로써 지금의 학교 교육은 시간을 크게 낭비하고 있다. 학생들의 지적발달 수준이나 인식체계를 믿고 지식이나 개념을 정직하게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이다.⁴⁾ 이 주장에서부터 유명한 나선형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이 도출되어 나온다. 개념의 교육은 학습자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출발하여 깊이와 범위를 점점 확대하는 것이 나선형교육과정이다. 브루너의 이 주장을 경제교육에 적용한다면 경제학의 어떤 개념들이 학생 수준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부분 교수자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잘못된 관념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3)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 핵심주제는 role of structure, readiness for learning, intuitive thinking, motives for learning의 네 가지이다.

4) The Process of Education(1960) "We begin with the hypothesis that any subject can be taught effectively in some intellectually honest form to any child at any stage of development. p33.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와 생산자 잉여(producer surplus) 개념은 과거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매우 어려운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개념들이 어렵게 인식되는 이유는 일단 한 학기 강의에서 교수학습 되는 부분에서 벗어난 후생경제학이나 일반균형이론 부분에서 자주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잉여(surplus)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도 하고 저항감을 주는 용어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⁵⁾ 잉여가 교환의 이익이나 효율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로 인식한다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왜 아까운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느냐고 물어보면 잉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잉여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브루노는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이나 흥미가 성적이나 미래의 성취와 같은 외부적인 목표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브루너의 교육과정 원리는 학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조화하여 학생들 수준에 맞추어서 가르쳐야 하는데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의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제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만화, 신문과 방송자료, 그리고 경제경시대회와 같은 행사들이 이어져야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격언은 공부를 많이 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경제학 용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환경이면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은 수의 경제용어를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경제학 용어와 친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익숙하지 않은 용어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필요와 흥미(needs and interest)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학이 학생들에게 필요와 흥미를 유발하기가 쉽지 않다. 필요는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혹은 현재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학습동기가 있을 것이지만 자발적인 학습동기로는 약한 감이 있다. 나머지 방법은 학생의 흥미를 불러일으켜야 하는데 이 방향으로 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브루노는 초기의 저서에 이어서 여러 논문을 통해서 교육과정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사전성향(predisposition), 구조(structure), 계열(sequence) 그리고 강화(reinforcement)와 같은 요인들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 때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5) 교수 휴게실에서 소비자 잉여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6명 중에서 4명이 반대를 하였다. 경제학 원론 수준을 넘고 후생경제학 개념이라는 주장이 2명 있었고 다른 두 명은 잉여라는 용어가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상용하는 용어이고 학생들이 알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잉여 대신 덤, 나머지,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두 명의 교수들은 최근의 경제학 원론들의 설명 방법을 따르면 충분히 쉬운 개념이라고 동의했다.

특히 계열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학교 경제교육과정은 더 많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의 경제 내용,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경제내용 그리고 심화선택 과목의 경제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초중고의 경제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가상해 보면 초중고가 모두 서로 겹치지 않도록 구성하는 방안, 초등학교의 내용과 중등학교의 내용 그리고 고등학교의 내용이 일부 겹치는 방식, 그리고 상급학교는 이전 학교의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형식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교육과정은 이 가운데 세 번째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 교육과정이 앞의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그 개념의 설명 수준이나 방법이 학교급별로 차별성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지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과정의 연계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	------

(학교 급별 교육과정에서 개념의 설명이 전혀 겹치지 않음)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 급별 교육과정에서 개념의 설명이 일정부분 겹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급학교의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함)

이 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교육과정은 경제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구조화해서 전달해야 한다. 또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필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학교급별로 내용의 연계성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경제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는 매우 오래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의 의미는 중의적이다. 하나는 경제교육의 내용으로 경제학의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야 하는가를 묻는 물음이 될 수 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대체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 위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경제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표현방법은 다르더라도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분야의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즉 국가나 지역 시기에 따라서 표현 방법의 차이나 경제학의 분야를 분류하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할 때 자주 언급되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미국의 NCEE가 경제 교육과정의 기본으로 1977년에 제시한 기본경제개념틀(A framework for teaching the basic concepts)이 있다. 이 지침서는 미국의 여러 주의 경제교육과정 개발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 판은 2003년 개정되었다.⁶⁾

NCEE 기본 경제개념(1993년 판)

대분류	기본개념
Fundamental Economic Concepts	1. Scarcity 2. Opportunity Cost and Trade-off 3. Productivity 4. Economic System 5. Economic
Microeconomic Concepts	7. Markets and Prices 8. Supply and Demand 9. Competition and Market Structure 10. Income Distribution 11. Market Failures 12. The Role of Government
Macroeconomic Concepts	13. Gross National Product 14. Aggregate Supply 15. Aggregate Demand 16. Unemployment 17. Inflation and Deflation 18. Monetary Policy 19. Fiscal Policy
International Economic Concepts	20. Absolute and Comparative Advantage and Barriers to Trade 21. Exchange Rates and The Balance of Payments 22. International Aspects of Growth and Stability
Measurement Concepts and Methods	Tables, Charts and Graphs, Ratios and Percentages, Index numbers Real vs Nominal Values Averages and Distributions Around Averages

6) NCEE가 2003년에 개정한 것은 이전 판의 5개 대분류에 넓은 의미의 사회적 목표(broad social goals)가 하나 더 첨가되었다.

다른 하나는 역시 NCEE가 다수 경제학 전문가와 교육전문가의 공동 작업으로 개발한 20개 내용기준(Voluntary National Content Standards in Economics)이다. 이 내용기준은 1998년에 나온 것으로 20개의 핵심적인 경제학 개념을 학습자의 수준에 맞추어서 성취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앞의 기본개념들과 다른 점이다. 그렇지만 이 내용기준도 경제학의 기본영역에서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경제학 개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의 것과 큰 차이가 없다.

NCEE의 20개 경제학 내용기준

- Standard 1: 희소성
- Standard 2: 한계비용-한계편익분석
- Standard 3: 자원배분과 경제체제
- Standard 4: 유인의 역할
- Standard 5: 교역의 이익
- Standard 6: 교역과 특화
- Standard 7: 시장-가격과 거래량 결정
- Standard 8: 시장가격의 역할
- Standard 9: 경쟁의 역할
- Standard 10: 경제기구의 역할
- Standard 11: 화폐의 기능
- Standard 12: 이자율의 역할
- Standard 13: 생산요소의 소득결정
- Standard 14: 기업가와 이윤
- Standard 15: 성장
- Standard 16: 정부의 역할
- Standard 17: 정부실패(정부의 비용편익분석)
- Standard 18: 거시경제(소득 고용 물가)
- Standard 19: 실업과 인플레이션
- Standard 20: 화폐정책과 재정정책

기본개념들이나 내용기준 모두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과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각 주별 교육과정이나 우리의 교육과정에서도 이 기준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영국의 중등교육과정의 경제학 내용은 미국의 경우보다 짜임새가 적지만 역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이라 볼 수 있는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에서는 학습해야할 경제학 내용을 시장경제제도(수요, 공급, 시장메카니즘, 노동시장), 기업행동(기업의 목표와 소유 형태, 기업성장, 경쟁과 시장구조), 시장실패와 정책(시장실패, 시장정책), 거시경제

개념과 정책(거시경제개념, 거시경제체제, 거시경제정책)의 4개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핵심내용을 가르쳐야 하는 것으로 답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물음은 종종 어떤 경제학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문제로 해석되는 수가 있다. 경제학의 기본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개념들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되거나 어떤 경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보다는 불일치가 더 일반적이다.

경제학은 실제 생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익한 개념과 도구를 제공하지만 이런 개념과 도구를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의 입장에서 전달할 수도 있고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의 입장에서 전달할 수 있다. 규범경제학의 입장에서 경제학 개념 학습이 이루어지면 적용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 올바른 경제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개념의 학습이 먼저 실증경제학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규범경제학의 입장에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는 원리만 배우면 미래의 경제상황에서 그런 결과들의 적용가능성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국제 경제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외국과의 경쟁을 막아야 하고 관세를 올려야만 한다고 배운다면, 학생들은 관세가 부가될 때 수입과 수출이 왜 줄어드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또 자신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단순히 '집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집값을 억제해야 해야만 한다'고 배운다면 집값 통제에 따라 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할지를 분석할 수 없다. 또 장기적으로 이런 가격 통제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경제학은 규범경제학 보다 실증경제학이 우선되어야 학생들의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어떤 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어떤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실증경제학이다.

경제교육에서 가치(value)의 문제도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경제학은 과학이지 윤리체계는 아니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 말은 경제학에서 가치의 문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경제학 학습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일치하는 대안을 선택하게 해주는 능력을 높인다. 그러나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선택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즉 학생들이 분석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 바뀔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주장을 교조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유로운 탐구를 통한 경제학 학습을 강조해야 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탐구에 기초한 가치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교육과정의 내용구성이나 추구하는 가치와 관련하여 누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가는 일찍부터 진보주의 교육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진보주의 교육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결정권(hegemony)을 국가가 갖고 국가는 현상유지의 주도적 이념을 전파하기 쉽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은 교육과정 개발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교육과정이 전파하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교육의 교육과정 개발이 공개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일어나고 또 경제학이 본질에 충실한 교육내용으로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면 학생들 스스로 가치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가치를 사전적으로 학생들에게 주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제4장 어떤 경제교과서가 필요한가?

1. 교과서의 기술이 적합한가?

앞에서 설명한대로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경제교육 내용은 교과서를 통해서 구체화 된다. 따라서 경제교육을 위한 교과서가 경제학의 핵심개념들을 담고 있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학교 경제교육에서 사용되는 경제학이 독립된 교과서를 갖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중학교까지는 경제학 내용이 사회과의 단원수준에서 제공되고 있다가 고등학교수준으로 올라가면 경제학 내용이 확대가 된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도 1995년까지는 정치·경제 교과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경제가 독립된 교과서를 갖지 못하였다. 1996년에서야 고등학교에서 경제가 독립 교과서로 만들어지면서 내용과 분량이 크게 확대 되었다. 이어서 2003년에는 그동안 국정으로 개발되어 단일 교과서만 있었던 데 비해서 검인정으로 바뀌면서 교과서의 외형적인 변화와 아울러서 종류도 5종으로 늘어나 선택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1996년 교과서는 독립된 교과서로 되면서 늘어난 지면을 이용하여 경제학 내용들을 대거 도입하였다.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로 축소된 '경제학원론' 교과서라는 비판을 받았다. 2003년에 나온 교과서는 지면의 크기나 색도인쇄 등의 외형적인 변화 외에 교과서의 편제가 교수학습이론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대거 도입한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서가 주류를 이루었다. 2003년의 교과서는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받고 있다. 한쪽에서는 학생활동 중심 위주로 운영되기에는 교과서의 경제학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적절한 학습 분량을 제시하고 학생들의 활동이 이루

어려야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활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말 교과서가 너무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가? 교과서에 사용되는 경제개념의 수가 너무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야기는 어렵지만 경향성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교과목이 독립된 이후에 교과서에 사용되는 경제 개념이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개념수 비교〉

교과서 종류	중주제(개)	개념수(개)	비고
1981년 정치·경제	10	275	
1990년 정치·경제	18	194	
1996년 경제	25	323	
2003년 경제(교학사)	17	518	대한교과서만 396개

특히 검인정 제도가 시행되면서 교과서들의 개념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나서 한 회사의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400개 이상의 경제개념들을 담고 있어서 학생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개념이 늘어난 것은 반드시 학습해야 할 개념은 아니고 읽기 자료나 참고 자료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개념도 있겠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개념들이 교과서에 실려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는 없다.

경제학원론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맨큐의 경제학은 3판이 나오기 전에 발간된 1판과 2판에서 사용된 개념은 대체로 250개 정도에 머문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많은 경제학 개념들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많은 개념들이 등장하는 것은 마치 종합비타민의 원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경제학 학습의 1차적 동기는 진학이나 입시에 이용하기 위해서다. 시험에 사용되는 책은 공부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담고 있어야 하는데 수요자가 이런 책을 찾는다면 공급자는 이런 책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2003년에 나온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중에서 개념수가 가장 많은 교과서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념수와 같이 외형적인 요인 말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교과서가 재미있는가 하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삽화 자료 등을 많이 포함시키고는 있지만 여전히 수요자의 요구에 대해서는 짐작일 뿐이지 수요자가 정말 좋아하는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는 아니지만 교과서보다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책이 교육방송의 수능강좌와 교재이다. 여기서 설명되는 경제내용이 수험생들에게는 경제 개념 해석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방송

을 비롯한 참고서들도 정확하고 적절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들은 개발과정이나 검정절차가 비교적 잘 공개되어 있고 또 여러 차례의 공청회나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잘못이 교정될 기회가 많다.

그러나 EBS가 수능 경제학을 독점하는 상황은 경제교육에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관련 학문 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브루너의 지적처럼 오개념이나 잘못된 설명이 등장할 수 있다.⁷⁾ 특히 문제를 통해서 경제학 학습이 이루어질 때는 상황설명에 따라 경제학과는 거리가 있는 사이비경제학(pseudo-economics) 교육이 이루어지기 쉽다. 아래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규범경제학 교육 때문에 생긴 적용의 한계를 보여 준다. 모범답은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가격의 기능을 통한 수요공급이나 일자리의 공급증가(혹은 경제성장)가 고용을 확대한다는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 학습에 역행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 실업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다음 글의 내용이 시사하고 있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프랑스의 실업률은 만성적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최악이라고 했던 외환 위기 때도 6.8%의 실업률을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 문제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내린 처방은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는 것이었다. 10명이 400시간 들여서 일할 것을 다른 변수를 고려하더라도 11명이 390시간 들여서 일하는 셈이라 당시 장관은 70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률은 10%대였다. 근로 시간을 줄였지만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10명이 400시간 걸려 했던 일을 그냥 350시간에 일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 ① 노동의 강도가 강해지면 실업 문제는 악화된다.
- ② 임금 상승이 수반되어야 실업률을 줄일 수 있다.
- ③ 일자리 나누기로는 실업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 ④ 주당 근무 시간이 줄어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 ⑤ 경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임금을 하락시킨다.

이와 같이 시중에서는 수많은 참고서와 문제집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참고서적들의 내용이나 설명의 정확도는 한계가 있다. 소수의 집필자들이 단시간에 제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개념이나 개인의 견해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경제관련 서적들이 많아지면

7) 6차 교육과정의 경제에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을 일반적인 경제원론의 설명과는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즉 총공급을 국내총생산과 수입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단일 교과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다른 교과서를 통한 시정의 여지가 없다.

학생들에게 경제용어를 친숙하게 해주는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오개념을 심어줄 폐단도 발생할 수 있다.

한 쪽에서는 교과서가 ‘반시장적 이념’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경제교과서가 추상화된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한국경제현실이나 실상과는 동떨어진 내용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비난들은 양쪽 모두 특정 가치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거나 부분적인 면만 보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비난들은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제5장 실증연구를 하자.

학교 경제교육은 주로 중등학교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사회과의 일부 단원으로서 경제교육이 일어나고 고등학교의 심화선택 과정에 가면 독립된 교과목으로서 경제교육이 일어난다.

중등교육을 마치면 보다 집중적으로 학문을 공부할 준비 단계가 되기도 하고 또 직업세계로 진출하기도 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가 되면 경제학의 기본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경제의 운영원리도 어느 정도 이해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경제교육이 집중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다.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된다. 생활중심보다 학문중심에 더 근접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실제 학습자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경제 교실수업에 참가하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학생들의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되며 경제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성취동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야 경제교육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흔히 경제학소양(economic literacy)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의미가 분명히 정의되는 것은 아니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스티글러(G. Stigler)는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경제학 개념과 경제이론에 대한 지식을 경제학소양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서 오랫동안 경제교육에 종사해온 한센(W. L. Hansen)은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의 행동이나 신념의 변화를 경제학소양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학소양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면 경제학소양의 측정 방법도 달라진다. 한센의 정의를 따르면 흔히 하는 시험점수로서는 경제학소양을 측정하기 어렵고 면접이나 관찰 조사를 통해서만이 측정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제학소양은 경제학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지식을 지칭하고 경제학소양은 표준화된 시험을 통하여 점수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학소양에 대한 학생들의 수준에 대한 사전검사가 있어야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고 또 학습이 일어난 이후의 사후검사는 경제교육의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학소양검사(TEL)와 경제이해력검사(TUE)와 같은 검사지들이 개발되어 경제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검사지들을 수정하여 중·고등학생의 경제지식 수준을 측정할 적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성취수준이나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들의 축적이 있어야 경제교육의 성과 측정은 물론 경제교육 내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경제교육은 이런 기초자료를 근거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교육방법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TEL을 이용하여 경제교육의 성취도를 측정한 재미있는 결과가 있다.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경제학, 소비자경제학, 일반사회(지리 역사 정치 경제)의 세 과목을 한 학기동안 공부한 후에 각 집단의 경제지식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경제학을 공부한 학생집단만이 유의미한 경제지식 수준의 증가를 보였고 나머지 두 집단은 학습을 통해서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핵심개념들을 근거로 만들어진 TEL의 4분야 중에서 기본개념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보였고 거시경제개념과 국제경제개념의 변화는 매우 작았다. 아울러서 3과목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어떤 개념들을 주로 가르치느냐는 설문을 시행하였는데 교사들은 세과목 공통으로 거시경제개념을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마 인플레이션 실업과 같은 거시경제학 개념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측된다. 눈에 띄는 결과 중의 하나는 학습을 통한 경제지식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지식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많지 않은데, 최근 KDI 경시대회 성적을 분석한 결과는 특목고, 남학생, 심화과정수강, 별도의 경제학 학습 그리고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이 경제이해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증 연구가 좀 더 진행된다면 경제교육의 애로 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방향으로 경제교육이 진행될 수 있고 그 결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경제과목을 수강하고, 별도의 경제학 공부를 하면 경제이해력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무적인 결과다.

기타 내용들

제6장 학습자와 교수자는 어떻게?(기타의 내용들)

1. 경제교육과 학습자의 학습동기

학습자의 학습 필요성과 흥미가 교육의 가장 훌륭한 성취동기가 된다. 특히 오늘날에는 필요성 보다는 성취동기가 더 중요하다.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등학교의 경제교육의 애로요인으로 학생들의 낮은 관심도와 적절한 교과서와 교육자료 부족 두 가지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수는 있어도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다는 격언처럼 학생들을 경제교실에 잡아 둘 수는 있지만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과 자료가 있더라도 학습자의 학습동기가 없으면 경제교육은 성공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유무상의 보상 외에 경제용어와 친숙하게 만드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2. 교사양성과 연수

미국의 사례에서 보면 학생들의 경제지식 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이 경제학 전담 교사요인이다. 교사가 대학시절에 경제학을 배웠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학을 전담해서 가르치는 경우에 학생들의 경제이해도 수준이 올라간다. 교사의 경제지식은 양성과정에서 축적될 수도 있고 현직에서 필요에 의한 연수를 통해서도 축적될 수도 있다.

교사양성 대학에서 적어도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과목을 공부한 사람이 경제학을 가르치는 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사회과 교사 자격 표시는 지리교사 역사교사 일반사회교사 국민윤리교사(도덕) 그리고 공통사회 교사가 있다. 이 중에서 일반사회교사들은 양성 당시에 최소한 경제학을 2학기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사회 자격 교사의 경제학 소양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주로 경제학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경제교육 담당교사의 경제학 소양을 높이는 길이다. 대도시에서 학교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각 과목의 교사가 자신이 전공한 과목을 담당하지만 중소도시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전공영역 혹은 표시자격증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욱 사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수요가 줄어든 교련, 가정, 제 2외국어(독어, 불어, 등) 표시자격 교사들이 단기간의 연수를 통하여 공통사회 과목 자격증을 획득하

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양성된 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학을 가르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같이 일반사회 표시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별도로 경제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체능 과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교사가 이웃하는 여러 학교를 순회하면서 자신의 전공인 경제 과목을 담당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경제 담당교사의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사회과, 경제담당을 분리하여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 담당교사의 우수 수업 사례 선정 포상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7장 맺음말

학교 경제교육은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의 한 부분으로 강조되어 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고 의사결정의 결과는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민주시민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필수적이다. 경제지식을 근거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이 경제교육의 목표이다.

현대사회에서 경제문제의 비중이 커지고 또 경제학은 모든 행위의 근거를 비용-편익분석에 따른 합리적 선택에 두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경제학소양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 따라서 경제교육의 필요성도 과거 어느 때보다 크다. 더구나 세계화 시대에는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스탠더드를 갖춘 세계시민성이 필요해진다. 세계 시민성의 속성이 무엇인가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글로벌스탠더드를 세계 시민성의 한 자질로 인정된다.

이 글로벌스탠더드 역시 경제교육을 통해서 배양이 가능하다.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작용하는 것으로 경제학소양은 지역사회, 민족국가를 넘어서 지구적 환경문제, 국경을 넘어선 기업활동, 전지구적 정책결정에도 여전히 유용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계시민 혹은 세계적 차원의 민주시민의 자질로서 경제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복지정책을 비롯한 사회정책의 실현, 개방정책에는 편익뿐만 아니라 비용과 의무도 수반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경제학이 필요하다. 국제교역의 기준을 정하고, 국경분쟁이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역시 경제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계화 시대에 글로벌스탠더드를 포함한 시민의 양성을 위해서 경제교육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경제교육이 성과를 갖추기 위해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사이비 경제학이나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와 같은 규범경제학의 범람을 막고 경제현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미래의 주인공들인 학생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교육과정의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학교경제교육의 출발은 그 근간이 교육과정에 있다. 따라서 경제학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에 더 많은 시간과 비중을 투자해야 하고 경제학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경제교육 내용의 연계성과 범위를 올바르게 정해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교과서 역시 교육과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과정의 내용과 취지가 교과서를 통해서 구체화되기 때문에 좋은 교과서가 경제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 조사들이 교과서는 쉽고 재미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경제학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면 딱딱하고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고 교육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면 수준이나 전달방식은 학생수준에 근접하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의 핵심내용이나 원리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협조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적었던 것 같다. 교사의 양성과 연수 두 수단을 적절히 개선하여 경제교육 담당 교사의 경제지식 향상이 중요하다. 교사는 단순히 교과서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고 구조화하여 전달하는 gatekeeper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단계에서 새로운 경제학 혹은 경제교육내용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교사 자격증이 별도로 없지만 연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경제전문 교사를 길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교사들이 지속적으로 경제 수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제교육 관련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경제교육의 내용이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경제학소양이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또 경제교육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도 경제학 소양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가 있어야 한다. 특히 학생들의 경제지식 수준에 대한 횡단연구와 종단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흔히 유망사업이나 인기품목의 베끼기가 한국경제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경제교육에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다. 경합적으로 경제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경제교육 조직이나 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특화나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문헌

- 경제교육연구팀(2004), 시민성의 조건, 협신사.
- 김정호, 이준혁, 최병모(2005), “학교 경제교육 방향 탐색을 위한 델파이 조사연구”
경제교육연구 12권 1호 pp53-83.
- 김진영, 박형준(2003), “학교 경제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시민교육연구, 36권, 1호,
pp23-42.
- 오영수(2005), “경제학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중등학교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
경제교육연구 12권 1호 pp29-52.
- 죽전이태근박사정년논문집 발간위원회 (1994), 경제교육연구.
- 한국교총(2006), 한국경제 및 기업에 관한 교원인식 조사연구, 미발표 자료
- KDI(2006), 학교 경제교육의 활성화 방안, 제 3회 경제경시대회 세미나 자료
- Frankel, M. L. (1965), Economic Education,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 O'Brien, Lynne M. et. al(1985), Effects of teachers' use of objectives on student achievement in social studies,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Vol. 8, no 3. pp57-65.
- Walstad, William B. and John C. Soper(1991), Effective Economic Education. JCEE and NEA.
- Walstad, W. and P. Saunders(1998), 『Teaching Undergraduate Economics』, McGraw-Hill.
- Thornton, Stephen J. (1989), Aspiration and Practice: Teacher as Curricular-Instructional Gatekeeper in Social Stud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70th, San Francisco, CA, March 27-31).
- VanFossen, Phillip J., An Interview with Phillip J. VanFossen: About Teaching, Thinking and the Social Studies, EducationNews.org Aug. 1, 2005.